

‘사랑·나눔·배려’의 고성교육 전개

고성교육지원청 2011년 교육 설명회 ... 임승환 교육장 “인재양성이 미래있는 고성 만든다”

고성교육지원청 2011년도 고성교육의 기본방향을 ‘사랑·나눔·배려의 고성교육’으로 정하고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간교육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 △가슴이 따뜻한 교육복지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문화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오후 2시 고성문화의 집에서 지역 기관단체장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고성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임승환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과 같이 인재가 없는 지역은 아무리 자연 경관

이 좋아도 발전할 수 없다”며 “지역의 인재 양성 지원이 미래의 고성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제1 중점과제로 선정한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간교육’ 달성을 위해 △시간 지키기 △약속 실천 △정직 등 자기관리 3운동을 전개하고, △칭찬하기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 △이름 불러주기 등 칭찬 3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제2 중점과제인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 달성을 위해 우선 기초학력을 책임지도하고, 죽왕초와 고성중 및 동광농공고를 대상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자율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기회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2011년 고성교육 설명회가 지난 8일 고성문화의집에서 열렸다.

대표 박탈 등 불운 딛고 정상 우뚝

흘리초교 4학년 때 ‘스키 신동’ 기량 ... 꾸준한 자기관리로 재기 성공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 정동현

제7회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고성의 명예를 드높인 정동현(사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계체전에서 형들을 제치고 우승하는 등 일찌감치 ‘스키 신동’의 기량을 보이며 대성할 것임을 예고했다.

고성군 간성을 흘리에서 태어난 정동현은 스키 선수였던 아버지 정기홍씨를 통해 어려서부터 스키를 접했으며, 광산초 흘리분교에 입학한 뒤 1학년 때부터 전문적으로 스키를 배우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웠다.

그는 특히 4학년 때 전국동계체전에서 형들을 제치고 우승하는 등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6학년 때인 2001년 전국동계체전에서 4관왕에 오르며 국내 스키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때부터 국가 대표의 꿈을 키워오던 정동현은 고성고 1학년 때인 2005년 일본 노타루 국제대회 회전 종목에서 정상에 오르며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그러나 공부에도 남다른 소질이 있던 그는 합숙훈련으로 인해 공부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일단 대표를 반납했다. 대신 국제스키연맹(FIS) 포인트가 30점 이상이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리노 올

림픽 출전은 가능할 줄 알았다.

그런 그에게 대한스키협회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2년간 대표 자격을 박탈했으며, 결국 어렵게 따낸 토리노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었다.

“국제스키연맹 포인트 30점이면 대회출전이 가능할 줄 알고 있었는데, 태극마크를 달려면 1년에 6개월을 합숙훈련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아쩔 수 없이 대표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지요.”

정동현의 어머니 박용순씨(49세)는 지난 8일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정동현은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대회 개막 1주일 전 훈련도중 스키날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어 수술을 받은 탓에 코스를 완주하지 못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어려서부터 ‘스키신동’, ‘한국 남자스키의 기대주’라는 찬사를 받아온 그는 4년간 기다려온 대회에서 부상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자 좌절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갖게 됐다.

그런 정동현은 이번 대회에서 다사한번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자기관리와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주위의 설명이다.

대한스키협회 알파인 국가대표팀 이기홍 감독은 “정동현은 낙천적인 성격인데다 기술이 뛰어나고 자기관리도 잘해서 한국스키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라며 “앞으로 월드컵 및 올림픽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지속적인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보탬되겠다”

김유동 영동권 배드민턴연합회장

국민생활체육 고성군배드민턴연합회 김유동 회장이 영동권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영동지역 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영동지역 배드민턴 연합회는 지난 2월초 2011년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및 임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유동 고성군연합회장을 만장 일치로 선출했다. 김유동 신임 영동권 회장은 고성출신으로 영동지역 연합회 사무국장, 2~3대 고성군연합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5대 고성군연합회장을 겸하고 있다.

김유동 회장은 또 간성을 광산1리 이장직을 맡아 광산1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헌신하고 있다.

김유동 연합회장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고성에 지속적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기사제보 · 독자투고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